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고등학생’ 유승은 스노보드 빅에어 동메달

스노보드 올림픽 첫 2개 메달
이나현은 빙속 1000m 9위
컬링 믹스더블 9위 마무리

성북고에 재학 중인 2008년생 유승은이 10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리비노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결선에서 171점을 얻어 무라세 고코모(일본·179점), 조이 사도스키 시넛(뉴질랜드·172.25점)에 이어 3위에 오르며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날 1989년생인 스노보드의 만형 김상겸(하이원)이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딴 데 이어 유승은이 동메달을 추가하면서 한국 스키·스노보드는 역대 처음으로 단일 올림픽에서 2개의 메달을 따냈다.

유승은은 1차 시기에서 몸 뒤쪽으로 네 바퀴를 회전하는 ‘백사이드 트리플 콕 1440’으로 87.75점을 받았고, 2차 시기에선 프러트사이드로 네 바퀴를 돌며 83.25점을 기록했다.

3차 시기에선 착지를 제대로 하지 못해 넘어지면서 20.75점을 기록했으나 높은 점수 2개를 합산하는 규정상 무리 없이 동메달을 획득했다.



9일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동메달을 차지한 유승은. 연합뉴스

밀라노 스피드스케이팅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1000m에선 차세대 에이스 이나현(한국체대)이 1분15초76의 기록으로 9위에 올랐다.

이나현은 1992 알베르빌 동계 올림픽에서 유선화가 거둔 한국 선수 올림픽 여자 1000m 최고 순위(11위)를 34년 만에 경신했다. 컬링 믹스더블 김선영(강릉시

청)-정영석(강원도청) 조는 코르티나담페초의 코르티나 컬링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라운드로빈 9차전 최종전에서 노르웨이의 크리스틴 스카를리엔-마그누스 네드레고텐 조에 5-8로 져 3승 6패, 9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루지 1인승 정혜선(강원도청)은 1, 2차 시기 합계 1분49초587을 기록해 25명의 출전 선수 중 24위를 기록했다.

피겨 스케이팅 아이스댄스 임혜나-권예(경기일반) 조는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리듬댄스에서 기술점수(TES) 34.28점, 예술점수(PCS) 30.41점, 총점 64.69점으로 23개 출전팀 중 22위에 그치며 상위 20위까지 주어지는 프리댄스 진출에 실패했다.

첫 과제 시퀀셜 트위즐(한 발로 회전하는 동작)에서 권예가 두 번째 회전을 시도하다 스텝이 꼬이며 주춤하는 실수를 범한 것이 뼈아팠다.

한국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로 중국과 함께 공동 12위를 달린다.

노르웨이가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로 단독 선두를 지키고 있고, 스위스(금 3, 은 1, 동 1), 일본(금 2, 은 2, 동 3)이 뒤를 잇는다.

연합뉴스

제주대 검도부 점전 끝에 국립대리그 정상

단체전 폭포대 3대2 제압
일반부는 4강 진출 실패

제주대 검도부가 2026년 전국대학검도 동계리그전에서 국립대리그 남자부 단체전 정상에 올랐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검도회에 따르면 전국 14개 대학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경남 창원군민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제주대 검도부는 점전끝에 폭포대를 3-2로 꺾고 남자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제주대는 앞서 열린 일반 대학부

조별리그에서 2승4패로 5위로 예선을 통과한 뒤 경원대A팀을 5-1로 제압하고 8강에 진출했지만 성균관대에 패해 4강 진출에 실패했다.

제주대 검도부는 2022년 준우승, 2023년 3위, 2024년 준우승, 2025년 3위, 그리고 이번 우승까지 5년 연속 입상이라는 성과를 내며 제주검도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제주대 검도부는 또 지난해 8월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8·15 광복절 기념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제54회 전국학생검도대회에서 대학부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2026년 전국대학검도 동계리그전 국립대리그 남자부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제주대 검도부.

LA 올림픽 야구 출전 방식 확정

프리미어12에 사활 걸어야

2028년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 야구 종목 본선 출전 방식이 확정됐다.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은 2028년 LA 올림픽 야구와 소프트볼 종목 본선 진출팀들을 정하는 방식을 확정해 10일 발표했다.

LA 올림픽 야구에서는 자동 출전하는 개최국 미국을 비롯해 6개 나라가 경쟁한다.

WBSC는 먼저 올해 3월 열리는 월드베이시볼클래식(WBC)에서 미국을 제외한 미주대륙 상위 2개 나라에 본선 진출권을 배정했다.

이어 2027년 11월에 열리는 WBSC 주관 프리미어12 상위팀에 2장을 준다.

이때는 아시아대륙 상위 1개 나

라, 유럽 또는 오세아니아 대륙 국가 상위 1개 나라가 LA행 티켓을 손에 쥘다.

마지막으로 6개 나라가 출전하는 최종 예선 1위 팀이 LA 올림픽 본선 막차를 탄다.

최종 예선에 나설 수 있는 나라는 본선행을 확정 짓지 못한 나라 중 아시아선수권대회 상위 2개 팀, 유럽선수권대회 상위 2개 팀, 아프리카선수권대회 1개 팀, 오세아니아선수권대회 1개 팀이다.

결국 한국 야구가 LA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2027년 프리미어12에서 같은 아시아 나라인 일본, 대만보다 좋은 성적을 내는 게 첫 번째 방법이다. 프리미어12에서 본선 티켓을 얻지 못한다면 아시아선수권을 거쳐 최종 예선에서 타진하는 게 차선책이다.

연합뉴스

홍명보호, 3월 A매치 첫 상대 코트디부아르 내달 28일 경기…4월1일 오스트리아 평가전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아프리카 강호’ 코트디부아르와 3월 A매치 평가전을 치른다.

대한축구협회는 내달 유럽 원정으로 치러질 두 차례의 평가전 상대를 확정해 10일 발표했다.

대표팀은 한국시간으로 오는 3월 28일 오후 11시 영국 런던 인근에서 코트디부아르와 맞붙은 뒤 장소를 옮겨 4월 1일 오전 3시 45분

오스트리아 빈에서 홈팀 오스트리아와 맞붙는다.

첫 상대인 코트디부아르(FIFA 랭킹 37위)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프리카 예선 F조 1위로 본선행을 확정 지은 팀이다.

월드컵 본선에서는 독일, 쿠라소, 에콰도르와 함께 E조에 속해 있다.

최근 치른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는 8강에서 이집트에 패해 대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연합뉴스

회 2연패에 실패했지만, 아마드 디알로(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에반 은디카(AS로마) 등 유럽 빅리그 주전급 선수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 만만치 않은 전력을 자랑한다.

이번 대결은 북중미 월드컵 조

별리그 3차전 상대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겨냥한 ‘모의고사’ 성격이 짙다.

특유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탄력적인 피지컬을 자랑하는 코트디부아르를 상대로 아프리카 팀에 대한 본선 경쟁력을 시험할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한국은 역대 코트디부아르와 한 번 맞붙어 승리를 거뒀다.

2010년 3월 런던 평가전 당시 이 동국과 광대회의 연속 골로 2-0 완승한 바 있으며, 16년 만에 다시 영국에서 재회하게 됐다.

연합뉴스

축

CONGRATULATIONS

취 임

서귀포시재향군인회여성회 회장

김 옥 화

서귀포시재향군인회여성회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귀포시재향군인회

회 장 박 종 철 외 임직원 일동

축

CONGRATULATIONS

수 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표창

김 상 현

(안덕농협 과장보)

농업분야 재해대응시책 사업 유공자 시상식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처가 가족 일동

축

CONGRATULATIONS

선 임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 제11대 회장

김 양 택

(인방종친회 고문)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 제11대 회장 선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김해김씨좌정승공파 인방종친회

회 장 김 수 형 외 종친 일동

왕방울 은행나무

성목 판매 (200본)

○공원 조성용(열매 냄새 없음)
○수령(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음)
○재래종 보다 열매는 2배 큼
○개량종(부채꼴, 대접꼴, 밥통꼴)

문의 : 010-4693-1698